



KB 국민은행

필리핀 광가시난팀 10월 보고서

김민철, 김혜지, 이해진



CONTENTS

1. 새로운 가족

2. 활동지 이야기

덤프사이트

푸가로

3. END POVERTY

4. 태풍과 함께한 일주일

5. 홈스테이

6. 그 밖의 이야기

루존대학교 방문, 헌혈

YMCA 수영 레슨

7. 우리의 이야기

10월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푸가로 데이케어센터	2 따갈로그어 수업 아띠하우스 청소	3 아카데미 올림픽	4 김민철 단원 도착!
5 다구판 시티 투어	6 덤프사이트 Right Side	7 University of Luzon방문, 헌혈	8 아띠하우스 대청소	9 푸가로 데이케어센터	10 따갈로그어 수업	11 휴식
12 덤프사이트 Left side	13 덤프사이트 Left side	14 END POVERTY 회의	15 푸가로 데이케어센터	16 YMCA 수영 레슨 돕기	17 END PORVERTY	18 다같이 영화보기
19 전기, 물이 끊김	20 로빈슨 몰 탐방	21 휴식	22 따갈로그어 수업	23 휴식	24 덤프사이트 방문 with Emong, Dominique	25 덤프사이트 활동 준비
26 덤프사이트 Right side	27 덤프사이트 Right side	28 푸가로 데이케어센터	29 비자 연장 홈스테이 준비	30 홈스테이 1일째	31 홈스테이 2일째	

태풍

첫 번째 장



새로운 가족

김민철

안녕하세요! 라온아띠 14기 필리핀팀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에밀리오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았고 매우 활발하며 축구, 농구와 같은 구기종목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아이들이 소라고 부를 정도로 먹는걸 좋아하고 먹는양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고 많이 먹습니다. 저에게 맛있는 걸 주거나 해주는 사람은 전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적어보자면 국내훈련합숙 당일 기적적으로 선발되어서 지금도 여기 필리핀에 있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현재 심정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고서지만 저에게는 첫 보고서라 많이 떨리네요. 저의 마음이 글로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고 3달 정도 남은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띠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잠깐만요!
이제부터 보실 아띠하우스는 최적의 최적인 상태입니다

아띠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아띠 하우스의 현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태극기가 달려 있는 소파가
눈에 띈다.

필리핀은 11월이 되면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

혜지는 이름 목걸이를 만들다가
남은 종이들로 크리스마스 장식
을 만들어 장식했다.

아띠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 아띠 하우스의 거실

소파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다.

눈 앞에 보이는 부엌,
오른쪽의 화장실,
하늘색 식탁까지!

아띠들의 하루는
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 아띠 하우스의 화장실

식탁 옆 화장실.



→ 아띠 하우스의 부엌

아띠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밥과 설거지를 한다.

'오늘 뭐 먹지'
매일매일 고민하는 곳!

아띠하우스 앞 고양이들을 소개합니다



아띠하우스에 살던 우리는 집 앞을 서성이는 몇 몇의 길고양이들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캣맘이 되기를 자청하여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게 되었다.

헤지와 롤리는 그들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붙였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새로운 가족들을 소개한다.

고양이들을 소개합니다 -내 멋대로 작명소-



부츠 하얀색 신발을 신고 있다.
부츠라코 이름지었더니 롤리가
p.u.s.s.y라는 남사스러운 별명으로
자꾸 부른다. 나는 반달세.

신데렐라
새하얀색 털에 뭐 묻은 것처럼 몸에
주황색 반점이 몇 개 있는 특징을 살려
이름지었다.

로코
고양이들 중 큰 소리도 내고,
힘도 센 고양이이다. 따갈로그어로
'로코'는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란다.

메리 이름을 지을 당시 임신부였다.
Mother Mary

?

오바마 고양이들 중 서열 1위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어
현재 세계 최고 권력자
오바마에서 따와 이름지었다.
비싼 몸이신만큼 사진 찍기에는
실패했다.

두 번째 장



활동지 이야기

DUMPSITE



1회(6일) 비행기, 돛단배 종이접기 Right side

Oct, 6th

○ 준비



푸가로 데이케어 센터에서 했던 비행기, 돛단배 종이접기가 아이들에게 있어 유익하고 재밌었다는 피드백이 나와 덤프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종이는 푸가로 때와 마찬가지로 YMCA에서 재활용 용지를 제공받았다. 재활용 용지이지만 일반 A4용지가 아닌 색지에 가까워서 종이접기에 유용했다.

1회(6일) 비행기, 돛단배 종이접기 Right side

Oct, 6th

○ 진행



적당히 그늘이 진 곳에 돛자리를 깔았다.
아이들이 모여 돛자리를 채우고, 자리가 부족한 아이들은 의자에 앉혀
종이접기 교실을 시작했다.

"Tupiin ng ganito(이렇게 접으세요)"를 외치면서
한 단계씩 설명해주었는데, 2,3명당 한 명씩 곁에 앉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왔다.

1회(6일) 비행기, 돛단배 종이접기 Right side

Oct, 6th

○ 진행



배를 접고 난 뒤, 아이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근처 자그마한 물 웅덩이에 배를 띄웠다.

1회(6일) 비행기, 돛단배 종이접기 Right side

Oct, 6th

○ 피드백

푸가로 때와 마찬가지로 종이접기를 잘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일일이 한 단계씩 접어주어야 했는데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금 큰 어린 아이들은 곧잘 따라하고
가르쳐주기도 전에 완성하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 사이의 나이 차이를 고려한 수업을 준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종이접기 수업 자체에 대해선 아이들에게
나름 친환경적이고 만들기 쉬운 장난감을 선물했다고 생각되어 긍정적으로 보았다.

2회(12일) 닷 루 닷 1-12, 알파벳 연결 그리고 색칠 곰돌이 abcd와 트럭 숫자 Left Side

Oct, 12th

○ 준비



마찬가지로 푸가로 데이케어 센터에서 했던 알파벳, 숫자 교육 활동을 덤프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일일 데이케어 센터가 되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푸가로에서 진행했던 트럭 모양의 숫자 연결 활동지와 더불어 곰돌이 모양의 알파벳 연결 활동지를 준비했다. 색연필도 마련하여 아이들이 점선을 연결한 다음에 나온 모양을 색칠하도록 하기로 했다.

2회(12일) 닷 루 닷 1-12, 알파벳 연결 그리고 색칠 곰돌이 abcd와 트럭 숫자 Left Side

Oct, 12th

○ 진행



left side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10명 미만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꽤 흥미를 갖고 관심을 보였다.
종이접기 교실과 마찬가지로 단원 한 명당 2,3명씩 아이들을 맡아
어려워 하는 아이들에게 일대일 지도를 했다.
활동지를 완성할 수 있게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ABC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플래시 카드를 이용해 알파벳을 가르쳐 주었다.
활동의 끝 무렵에는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을 나눠 주었다.

2회(12일) 닷 루 닷 1-12, 알파벳 연결 그리고 색칠 곰돌이 abcd와 트럭 숫자 Left Side

Oct, 12th

○ 피드백

배움에 대한 욕구가 큰 아이들은 스스로 잘 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3-5세)은 숫자 연결하는 것도 힘들어 했다.
다행히 우리가 따갈로그어로 숫자를 외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따갈로그어로 숫자를 가르쳐 줄 수 있었다.

영어를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필리핀에서 영어가 많이 쓰이는 데 반해 아이들이 배울 만한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어린 아이를 위해 쉬운 활동지를 준비하고, 알파벳 교육을 강조하기로
결론을 지었다.

Oct, 13th

○ 준비

3회(13일) 사과 닳투닷,
숫자와 알파벳 교육 사과 (1-14) / 알파벳 쓰기 연습
Left side (쓰레기가 너무 쌓여서 위험하여 Right 못감)



전날의 피드백에 따라 어린 아이들을 위해
숫자로 된 활동지와 알파벳 쓰기 연습 활동지를 준비했다.

3회(13일) 사과 닳투닷, 숫자와 알파벳 교육 사과 (1-14) / 알파벳 쓰기 연습 Left side

Oct, 13th

○ 진행



덤프사이트를 가기 전, 우리는 Right side를 방문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갑자기 쌓인 쓰레기와 이틀 전 내린 비로 인해
Right side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우리들의 안전을 걱정한 officer들은 가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조언했다.
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쓰레기를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위험 물질을 밟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Left side로 발길을 돌렸다.

3회(13일) 사과 닳투닷, 숫자와 알파벳 교육 사과 (1-14) / 알파벳 쓰기 연습 Left side

Oct, 13th

○ 진행



1부터 14를 연결해서 사과를 완성하는 활동지는 어린 아이들에게 알파벳 쓰기 연습은 이름 정도는 쓸 줄 아는 큰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전히 어려워 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일일이 곁에서 완성하도록 도왔다. 끝으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사탕 간식을 주었다.

3회(13일) 사과 닳투닷, 숫자와 알파벳 교육 사과 (1-14) / 알파벳 쓰기 연습 Left side

Oct, 13th

○ 피드백

쓰레기가 길을 막아 Right side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계획대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 안에서 의견이 나뉘었다.

최대한 코디네이터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단원도 있었고, 우리가 위험해질 경우 궁극적으로 덤프사이트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단원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혹시 모를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고 코디네이터와 관련 오피서들의 의견에 따르는 편이 옳다고 보았다.

아이들과의 활동에 대해선 알파벳, 숫자 교육 뿐만 아니라 몸놀이와 같은 즐거움을 동반한 활동을 고안해야 겠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4회(24일) 태풍 이후 첫 방문 with 도미니크, 에몽 Right/Left side

Oct, 24th

○ 준비



태풍 후 첫 덤프사이트 방문이었다.
Right side / Left side 모두 방문하여 태풍이 왔던 기간동안
주민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태풍 이후의 덤프사이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를 살펴보았다.

YMCA Volunteer인 Emong과 Scholar인 Dominique가 우리와 함께 했다.

5회(26일) 손씻기 교육/ 알파벳 'A' 쓰기, 숫자 플래쉬카드 Right Side

Oct, 26th

○ 준비



우리는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수준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푸가로 데이케어 센터의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두 글자씩 교육하는 모습을 본 것을 착안하여, 어린 아이들에게 한 번에 모든 알파벳을 가르쳐서 알려주기 보다는 하루에 하나의 알파벳을 확실히 숙지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알파벳을 잘 아는 아이들에게는 알파벳 빙고를 준비하였고, 한 그룹에게는 알파벳 'A'를 써볼 수 있는 종지와 알파벳, 숫자 플래쉬 카드를 준비하였다.

5회(26일) 손씻기 교육/ 알파벳 'A' 쓰기, 숫자 플래쉬카드 Right Side

Oct, 26th

○ 진행



알파벳 빙고를 준비해 갔으나 숫자 빙고로 바뀌어서 진행하였다.
다른 한 그룹을 위한 알파벳 자료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 중 A라는 글자를 처음 써 보는 아이들을 위해 시범을 보여주고
직접 써보게끔 하였다. 준비해간 숫자 플래쉬 카드로 아이들과
영어로 숫자를 말해보거나 알파벳 플래쉬 카드로는 다같이 ABC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상처치료를 함께 진행했다.

5회(26일) 손씻기 교육/ 알파벳 'A' 쓰기, 숫자 플래쉬카드 Right Side

Oct, 26th

○ 피드백

팀원들은 상처 치료를 하다 보니,
아이들의 위생이 상처치료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손이 굉장히 더러워 상처가 세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손을 씻기기로 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알파벳을 한꺼번에 가르쳤을 때보다는
알파벳을 하루에 하나씩 가르쳤을 때 훨씬 더 잘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10 이상의 숫자에 대해 따갈로그어로도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꽤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6회(27일) 미니언, 엘사 색칠공부/ 상처 치료/ 손씻기 교육 Right side

Oct, 27th

○ 준비



알파벳 'B'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가려고 했으나 YMCA 프린터는 낮 시간에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들었다 (보통 활동준비를 주로 저녁에 했으나, 이후엔 활동준비를 되도록이면 오후 시간에 하기로 했다).

그래서 대안을 찾던 중 우리는 YMCA 프리스쿨의 학부모님들께서 기증해주신 색칠 공부책을 복사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언과 엘사, 올라프를 색칠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마트에서 크레용을 구입했다.

6회(27일) 미니언, 엘사 색칠공부/ 상처 치료/ 손씻기 교육 Right side

Oct, 27th

○ 진행



아이들이 처음에 손 씻기에 관심이 없어서
"손 씻은 사람만 사탕 줄거야" 라고 하면서 손을 씻겼다.

준비해 간 색칠 공부 자료는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그림을 골라서 색칠하게 했다.

6회(27일) 미니언, 엘사 색칠공부/ 상처 치료/ 손씻기 교육 Right side

Oct, 27th

○ 피드백

아이들이 큰 관심을 보였고, 준비해 갔던 색칠 공부 자료가 모자라서 참여하지 못한 아이도 있었다.

손씻기 교육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아이들이 생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자는 생각도 공유했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 김민철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 김민철

10월 6일 첫 라온아띠 활동을 덤프사이트로 시작하였다. 처음 왔을 때 멤버들에게 어떻게 물어봤지만 일단 직접 가서 느껴보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상상 이상이였다. 겉으로는 티는 안냈지만 극도로 심각하였고 쓰레기 더미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게 신기했을 정도였다.

그리고 안타깝게 봤던 부분이 어른들은 어느정도 면역력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위생이 안 좋은 곳에서 맨발로 걷고 뛰어다니고 뒹굴고 그러다 보니 피부병이 매우 심했던게 가슴이 아팠다. 어릴적에는 흙도 먹고 뒹굴고 그래야 된다는 한국 어르신들의 말도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우리가 매일 갈 수도 없고 많은 약들을 지원해주기도 어렵지만 활동을 하러 갈 때라도 최대한 치료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첫 달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꼭 가르쳐주고 그거를 습득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주고 하라고 한들 그들의 환경이 안 따라주고 굳이 자신들이 바꾸지 않는다면 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교육에 집착하지말고 우리가 찾아감으로써 행복해하고 웃으면서 보내는거 그 자체가 좋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덤프사이트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 내가 살면서 봤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웃음을 봐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나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기로 마음 먹었던 계기가 되었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 김혜지



10월의 덤프사이트 활동을 떠올리면 매번 한계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체력이 떨어질대로 떨어져서 머리는 철저히 몸의 지배를 받았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갈 때의 상태는 헤롱헤롱 해서 가지만 덤프사이트 사람들을 만나고 오는 길의 나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번 있는 힘을 다해 만나러 갔던 것 같다.

우기의 끝을 화려하게 장식하듯이 10월엔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날 쓰레기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쓰레기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다. 이윽고 Right side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이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마음이 정말로 복잡했다. 이렇게 덤프사이트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떠오르지만 앞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나갈 것이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 이해진



'어떻게 하면 덤프사이트 아이들에게 더 줄 수 있을까?' 덤프사이트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다. 우리가 덤프사이트에 가는 이유가 덤프사이트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함이기에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방적인 원조가 바람직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했다. 그러던 중 홈스테이를 가게 되었고, 팡가시난 YMCA 스텝이셨던 김의 아버지(파파)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파파는 그동안의 내 생각에 일격을 가하셨다. 파파는 덤프 사이트 아이들에게 곧바로 주지 말라고 하셨다. 즉, 그들의 부모에게 먼저 문제를 알리고 부모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파파께서는 아이들이 겪는 결핍의 책임이 그 부모에게 있다고 보신 까닭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는 문제에 대해 음식을 줄 생각을 하기 보단 우선 부모에게 먼저 이를 인식시키고 책임을 다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라온아띠가 아닌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못 먹이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다.

덤프사이트 개인 소감 / 이해진

사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이들의 몸이 더럽더라도, 밥을 못 먹어 굶고 있더라도, 상처가 나서 잘 걸 어다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책임을 다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주면 부모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존할 것이고,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아이가 캔을 밟아 발을 엄청 크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는 아이가 신발을 신고 다니든 말든 신경쓰지 않았다. 우리만 난리 법석이 되어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주었는데, 아이의 부모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부모가 책임을 다하기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수많은 아이들이 굶을 수밖에 없고 아픈 채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가 언제 변화할 지 모른다. 그렇다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아이들의 결핍을 바로 충족시켜버리면 부모는 계속해서 우릴 의존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사이에서 우리는 일단 아이들을 돕는 것을 선택해 왔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그들의 부모에게 아이에 관해서 묻고 알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덤프사이트 아이들이 부모의 책임 아래 건강하고 깨끗하게 잘 자란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자원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고, 혹은 그렇지 못하기에 라온아띠가 10기부터 지금까지 덤프사이트에 방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느냐 보다도 어떤 자세로 주느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파파께서는 아띠들 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다. 정답을 내릴 순 없겠지만, 좀 더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고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PUGARO
DAYCARE CENTER

1회(1일) 종이접기 (왕관, 꽃, 하트)

Oct, 9th

○ 준비



저번 시간의 종이 접기 수업이 아이들의 흥미를 잘 이끌어낸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종이 접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왕관과 하트 모양을 접어 데이케어센터 밖에서 항상 아이들을 돌보시는 어머님들께 아이들이 직접 접은 종이를 선물하고 마무리 짓기로 계획했다.

1회(1일) 종이접기 (왕관, 꽃, 하트)

Oct, 1th

○ 진행



한 명씩 한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씩 종이를 접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접을 수 있도록 최대한 천천히 진행했다. 마지막에 어머님들께 본인이 접은 종이를 선물하게 하고 마무리했다. 어머님들과 마리에따 선생님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회(1일) 종이접기 (왕관, 꽃, 하트)

Oct, 1th

○ 피드백

저번 달에 이어 우리는 종이 접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데이케어센터 아이들이 무엇을 진행하면 잘 따라올 수 있을 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 지에 대해 점점 가능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푸가로의 데이케어센터는 알파벳과 숫자 등의 교육을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되어 있다.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이번과 같이 종이접기와 같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보다는 몸놀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Oct, 9th

○ 준비

이 주의 커리큘럼 주제는 '운송수단'이었다. 아이들에게 자동차, 트라이시클, 버스, 트럭 등의 다양한 운송수단을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어릴적 자주 했던 '동대문 놀이'를 생각해 냈다. 기차처럼 여러 아이들을 연결하고 2명은 동대문이 되서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 기차가 동대문을 지나는 게임이다. 동대문 노래를 한국어로 부를 순 없으니, 영어로 된 버스 노래(Wheels on the bus)를 유튜브에서 찾아 재생시키기로 했다. 노래에 맞춰 원래는 '기차 놀이'이지만 '버스 놀이'로 변형시켰다.

이 게임을 준비하고, 시간이 남을 것을 염두해 '닷투닷' 활동지를 마련했다. 점을 연결하면 트럭이 되는 활동지라 운송수단이라는 주제에도 잘 맞을 것이라고 보았다.

Oct, 9th

○ 진행



게임을 하며 재생시퀀 노래를 외우며 푸가로로 향했지만, 도착하니 선생님께서는 오늘 재난 준비 세미나(Disaster preparedness seminar)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재난 대피 훈련 전에 수업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해간 게임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닷투닷 활동지를 완성하고 색칠하게 하기로 했다. 일단 아이들에게 숫자와 숫자,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준 다음 연필과 종이를 나눠주고 테이블 당 단원 한, 두명씩 맡아서 도와주었다.

Oct, 9th

○ 피드백

마리에따 선생님께서 수업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곳에 도착해서야 통보하셨다. 수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다 보니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정신이 없었다. 준비한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온 것에 큰 아쉬움을 느꼈다.

수업에 대해선 아이들이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그런지, 혹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런지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쉬운 활동을 준비해 간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이들이 버거워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절망에 빠진다. 그렇다고 일일이 우리 손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최대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색칠을 하게 하는 데 있어 준비해간 색연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선생님이 갖고 계신 색연필이 많았다. 다음 번에 색연필을 이용해야 될 때가 오면 선생님께 지원을 요청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3회(15일) 이름 목걸이, 한/필 국기 모자이크

Oct, 15th

○ 준비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기 쉽게, 또한 쉽게 부를 수 있도록 이름표를 만들었다. 사과 모양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번주는 커리큘럼 상 국기와 관련한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필리핀 국기와 태극기를 모자이크 방식을 이용해 만들어 보기로 했다. 모자이크를 이용한다면 아이들이 국기의 모양과 색깔을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3회(15일) 이름 목걸이, 한/필 국기 모자이크

Oct, 15th

○ 준비



큰 흰색 종이를 준비했고 밑그림을 그려가 현장에서 해당 색깔의 종이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색지)를 조그맣게 찢어서 아이들이 붙이게끔 하기로 했다.

3회(15일) 이름 목걸이, 한/필 국기 모자이크

Oct, 15th

○ 진행



한 명씩 이름을 불러서 이름 목걸이를 걸어주고, 다음에 필리핀 국기, 한국 국기 순으로 모자이크를 진행하였다. 일단 테이블을 모두 붙여 아이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했다. 밑그림이 될 종이를 펼치고 아이들에게 파란색, 빨간색 종이를 찢어주었다. 종이에 대충 풀칠을 하여 아이들이 쉽게 붙일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참여했는데, 한 두명의 아이들이 아이들 무리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국 국기를 모자이크할 때, 그 아이들만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필리핀 국기를 보완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필리핀, 한국 국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색깔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3회(15일) 이름 목걸이, 한/필 국기 모자이크

Oct, 15th

○ 피드백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집중력과 흥미가 있었다.

또한, 모자이크는 국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색다른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만약 다음에 비슷한 것을 하게 된다면, 국기에 그려진 의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



4회(28일) 동물 실제 소리 비디오, 동물 그림 색칠하기 with Mark

Oct, 28th

○ 준비



이번주에는 동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동요가 포함된 비디오와 많은 동물들의 실제 소리가 담긴 비디오를 준비하였다.

추가적으로 눈높이에 맞춘 귀여운 동물들의 도안을 준비해서 색칠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4회(28일) 동물 실제 소리 비디오, 동물 그림 색칠하기 with Mark

Oct, 28th

○ 진행



먼저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비디오를 보여주고 소리를 직접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이후에 동물 도안을 나눠주고 색칠을 하도록 도왔다.

YMCA Volunteer인 Mark가 우리를 도와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

4회(28일) 동물 실제 소리 비디오, 동물 그림 색칠하기 with Mark

Oct, 28th

유튜브를 이용해서 다양한 비디오, 다양한 동요를 들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 피드백

그러나 아무래도 노트북으로 보여주다 보니 화면이 너무 작아 아무리 아이들을 앞쪽으로 붙여 앉힌다고 하더라도 뒤쪽의 아이들은 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준비한 비디오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봐야 할 것 같다.



푸가로 개인 소감 / 김민철



푸가로 개인 소감 / 김민철

필리핀에 오기 전에 들었던 푸가로는 배를 타고 들어간다고 해서 일단 신이 났었다. 왜냐하면 뭔가 신기하고 재밌을 거 같았기 때문이다. 직접 와서 마켓 근처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보니 한 마을 치고는 컸었다고 느꼈다.

활동을 해보니 멤버들이 말했던 거 처럼 덤프사이트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여기 아이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마냥 좋은게 아니라 싫은거는 안하고 하고 싶은 거는 하고 확고한 애들이 많았다. 같은 나라 도시 안에서 마을만 달랐을 뿐인데 자란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래서인지 덤프사이트 보다도 계획을 세울때 조금 더 고민하게 되고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던거 같다.

또한 한국과 다르게 느꼈던 점이 보통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고 하면 특별한 날에만 있었는데 푸가로 유치원의 경우는 매일 학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의 학습을 보고 도와주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기 힘든 한국의 부모들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여서 아이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도와주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 나가야 겠다고 생각했다.

푸가로 개인 소감 / 김혜지



푸가로에서 우리가 했던 활동들은 절대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활동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팀원들과 코디네이터들이 다같이 이름표를 만들고 활동을 위한 준비물을 만들기 위해 보냈던 시간은 우리가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유튜브, 핀터레스트, 텀블러 심지어 네이버 블로그 등등을 열심히 뒤지는 동안, 나는 마치 내가 ‘아이들의 엄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런 내 모습이 무척 어색하면서도 즐거웠다. 다음 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아이들과 나눌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했다. 되게 가시적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다.

부족한 나에게 아이들은 너무나도 감사한 존재들이다. 많이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행복하게 활동을 준비하던 추억들,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했던 추억들을 통해 10월의 푸가로는 내게 또 다른 에너지를 선사했다.

푸가로 개인 소감 / 이해진



푸가로 개인 소감 / 이해진

"아떼 마리나!!!" 한 아이가 내 이름을 힘차게 부른다. 그럼 난 활짝 웃어주며 "오! 타마(맞아) 마갈링 마갈링(Good)!!"라고 말해준다. 처음엔 수줍수줍해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젠 우리를 기억하고 좋아해주는 듯하다. 푸가로 (데이케어센터) 아이들은 여느 아이들처럼 정말 예쁘다. 나를 불러주는 귀여운 목소리가, 얼굴에 난 보송보송한 솜털이, 또랑또랑한 눈망울이, 자그마한 손이 정말 예쁘다. 보통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고 말하곤 하는데, 그 느낌을 대충 알 것 같다.

그러나. 가끔은 이 아이들을 상대하기가, 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다. 유아교육과를 전공했다면, 사범대를 다녔다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커리큘럼에 따라 무엇을 가르칠지 생각해 내고, 준비물이 필요하다면 사서, 보트를 타고 열심히 가서, 따갈로그어로 가르치기까지. 돌아오는 길엔 정신 못차리고 졸도한다.

덤프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쏟게 된다. 이곳엔 담당 선생님이 있어 그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이들과 우리들의 이름표를 만들어야 했고, 아이들 건강에 좋은 간식을 준비해야 하며, 주로 미술 쪽이나 몸놀이 교육을 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야 함이 옳다. 하지만 덤프사이트 아이들보다 푸가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신경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느낀다. 푸가로 아이들이 더 필요로해서 더 많은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당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쓰는데, 덤프사이트 아이들은 대충 아무거나 주고 푸가로 아이들은 비싸고 좋은 것을 준다면 그건 정말 공평하지 않을 뿐더러, 한마디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간식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덤프사이트 아이들에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덤프사이트 아이들의 영양이 더 결핍되어 있고, 심지어 푸가로 아이들은 정부로부터 'Feeding program'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지금까지 나는 여전히 덤프사이트와 푸가로의 아이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맘돌지만 어느 활동지에 가든 아이들과 열심히 놀고, 열심히 가르쳐주려 한다. 이 땅에 소중하지 않은 아이들은 없고, 내가 만나는 이 아이들이 나로부터 조금이나마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내가 준 이 사랑을 다른 곳에 더 흘려 보내지 않을까. 나지막이 바라본다.

세 번째 장



END POVERTY CAMPAIGN

문제 분석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는 교통과 관련한 것이었다. 수많은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도로를 가득 채우지만 중앙선이나 인도를 나타내는 선이 지워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운전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되짚어 생각했을 때 지나다니면서 아동들을 본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도로 사정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코디네이터 롤리 또한 한국의 신호등을 가장 부러운 것으로 꼽았다. 신호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손으로 차를 멈춰 세워야만 건널목을 지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곳은 안전에 대한 빈곤을 겪고 있다고 본 것이다.

덤프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기에 환경 문제도 간과할 수 없었다. 한국도 환경문제에 있어 바람직한 상태라고 볼 순 없는데, 필리핀은 특히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특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소포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1리터 짜리 세재를 100밀리리터씩 10개로 낱개 포장을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그러한 낱개포장을 선호한다. 문화가 그렇다 보니 플라스틱 포장지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다. 덤프사이트의 8할이 플라스틱 포장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민주적인 정치형태도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코디네이터 롤리는 "현재 다구판 시의 시장은 돈을 주고 표를 사서 시장이 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표를 사서 시장이 되는 것이 하나의 관습처럼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다구판 시의 시장은 다구판에 굉장히 큰 몰을 소유한 부자다.) 뿐만 아니라, 권력 세습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한계, 그리고 피드백

이렇게 필리핀의 문제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나름 원인도 분석해 보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의 눈으로, 고작 한 달여 간 본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고작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

그렇기에 빈곤 퇴치 캠페인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문제에 대해 실제 주민들에게 직접 묻고, 듣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주민은 푸가로 커뮤니티의 주민들이고, 커뮤니티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미 총장님의 피드백으로부터 푸가로를 설정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기점으로 푸가로 커뮤니티에 대한 장기적인 빈곤 퇴치 캠페인을 실행하기로 했다.

'세계빈곤의 날' 캠페인 진행 과정

오전에는 캠페인 진행에 도움을 줄 장학생, Y발런티어들에게 PPT로 사전 OT를 진행하였다. 주민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나의 POVERTY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OT를 하는 과정에서 캠페인에서 쓰이게 될 스티커를 장학생 및 발런티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Raonatti 단원들도 포함하여 함께 'I have poverty in ____ but I have _____'을 완성시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OT를 마치고 푸가로로 가려고 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하여 급하게 취소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급하게 일정을 바꾸게 되었다.

이후 팡가시난YMCA 건물 안에서 '슬럼독 밀리어네어'를 보고 영화에서 드러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역시 태풍때문에 volunteer과 scholar들이 집에 돌아가야 해서 영화를 다같이 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한달 정도 있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활동이 End Poverty이다. 그 이유는 필리핀에 합류한 지 얼마 안되서 많은 큰 프로젝트였고 우리 멤버들과 Y 식구들이 처음으로 함께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NCYK에서도 중요시했던 만큼 한국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팀들과의 많은 교류를 필요로 했다. 솔직히 말해서 꾸준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준비 기간동안 만큼은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도 세웠지만 당일 태풍으로 인해서 활동하려고 했던 곳을 못 갔다.

하지만 이번 End Poverty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 필리핀팀은 준비하였기 때문에 세계빈곤퇴치의 날 당일은 Y식구들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지만 주마다 라던지 시간 남을때 가까운 곳 부터 천천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쉬움을 덜 수 있었다. 그리고 당일 날 했던 Y 식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처음이라고 해서 좋았다고 피드백을 얻어서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실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태풍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날의 END POVERTY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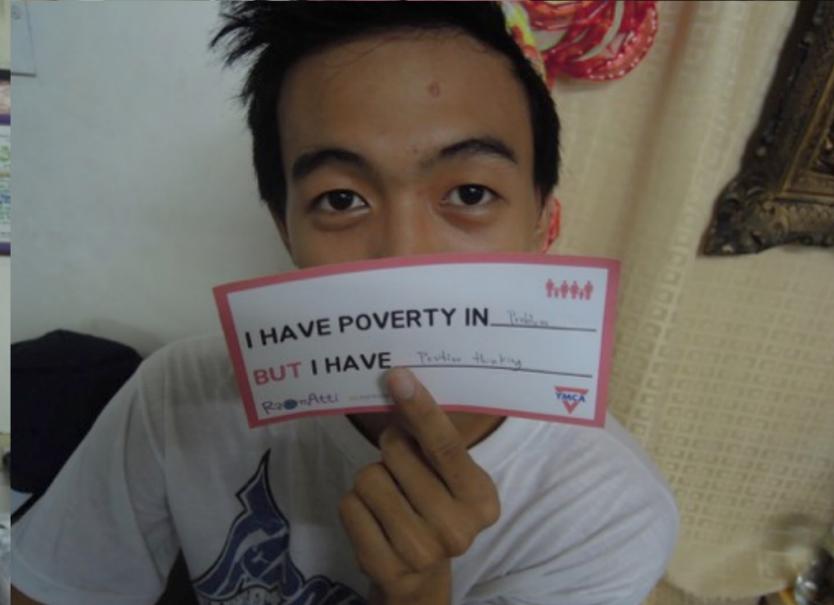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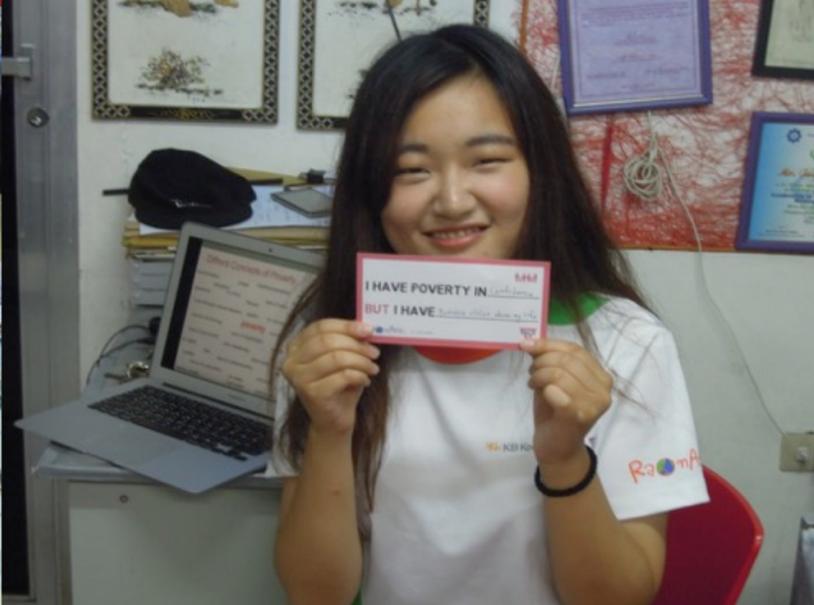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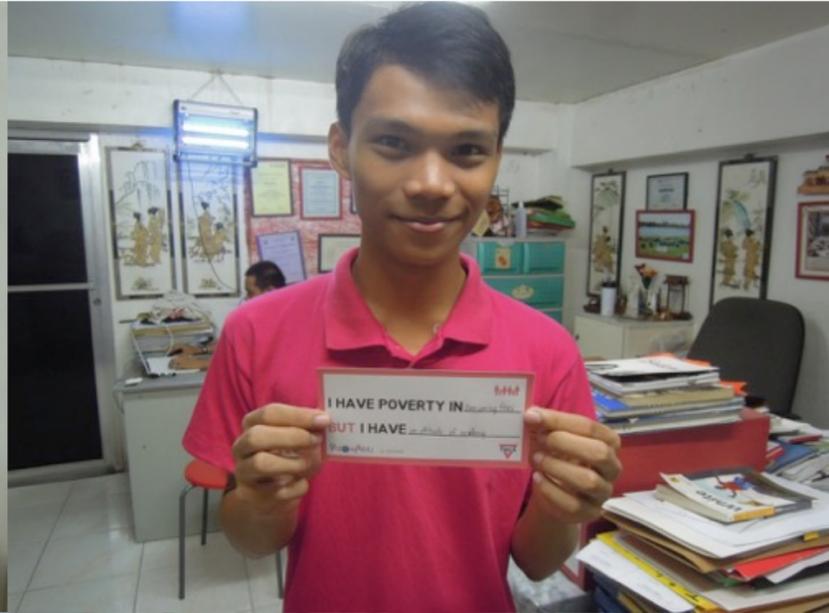
처음에는 POVERTY의 개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캠페인 진행 방식을 결정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팡가시난 Y사람들과 함께 내 안의 POVERTY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나눈 그 순간, 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가 POVERTY에서 해방된 느낌을 받았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울컥했다. 나는 그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큰 맘 먹고 내 노트북에 그 때 내가 적었던 스티커를 붙였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걱정이다. 장기 프로젝트로 계획했지만 그 이후로 한번도 END POVERTY 활동을 하지 못했다. 시간이나 체력으로 인해 흐지부지되지 않고, 꼭 한 번이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End poverty campaign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 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그러나 지미 총장님께서는 그런 내 마음을 들여다 보시거나 하신듯이 "라온아띠가 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해주셨다.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전하고 이들의 마음 속에 작은 변화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미 총장님께서는 우리에게 "푸가로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데이케어 센터의 어머니들부터 캠페인을 진행하라"고 제안하셨다. 멀리서, 모르는 사람한테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뿐더러 그들부터 시작하여 점차 넓혀가는 편이 좋다는 것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장기 캠페인에 대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조금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POVERTY





네 번째 장



태풍과 함께한 일주일



태풍 LANDO는 2015년 10월 둘째 주에 필리핀을 강타했다. 북부 지역에 속해 있는 팡가시난은 태풍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

비록 롤리는 이번 태풍이 그나마 강하지 않은 편이었다고 말했지만 LANDO는 우리가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강한 바람과 비를 몰고 왔다.

“이런 태풍 처음이야!”

아띠들은 어떻게 이 태풍을 받아들였을까?

10월 17일 End Poverty 활동이 있는 중요한 날부터 시작된 태풍은 우리들을 웅크리게 만들었고 처음에는 실 틈없이 활동해온 멤버들에게 휴식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태풍보다 훨씬 강했고 전기가 나가고 나중에는 물까지 안 나오는 상황이 왔었다. 이런 경험은 어렸을때 '매미'와 군대 이후로는 못 느껴봤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 당황스럽고 답답했지만 이런것도 나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강한 태풍으로 인해 이번주 학교들은 휴교를 내렸고 걱정되었던 게 우리가 활동하는 덤프사이트와 푸가로가 바다 근처라서 다른 곳 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얼른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 활동지를 가보니 인명 피해는 없었고 건물들이나 주변 환경들만 손상이 가서 다행이었다. 다시는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태풍에 관해서 쓰려니 ‘10월에 태풍이라니’하고 코웃음쳤던 내가 떠올라서 부끄럽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는 자연재해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태풍 ‘LANDO’와 함께 했던 매일은 내게 너무나도 신선했다. 평소에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는 롤리가 이렇게 사재기를 한 것도 처음 봤고, 집 앞 도로가 물로 잠기거나 인터넷이나 전기가 끊겨서 양초로 집안을 밝히고, 심지어 물이 끊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라디오로 상황을 들으면서 매일 덤프사이트 사람들과 푸가로 사람들이 무사했으면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이 기억을 마냥 힘겹고 부정적으로 보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태풍은 언젠간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태풍과 함께한 일주일동안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다.

#1

LANDO는 강풍을 몰고 왔다. 창문이나 문을 닫고 있어도 바람소리가 웅웅 들려서 무서울 정도였다. 집 안에서 바람소리를 듣고 있다가 한 순간 ‘아, 한국에서는 이런 바람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스스로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발을 옮겼다. 그리고 내가 느낀 충동대로 밖에 나가 타이타닉 자세를 하고 눈을 감았다. 비록 나는 건물 밑에 있었고 비를 맞지 않을 만한 안전한 곳에 있었지만 바람이 나의 뺨을 때리고 몸을 있는 대로 밀어재끼는 것을 느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의 강력한 힘이란 건 인간을 한없이 작게 만드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 내면을 단련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자연이 무섭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놀라운 경험이었다.

#2

전기와 물이 끊겼던 날, 우리는 YMCA에서 다같이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YMCA로 온 scholar들과 staff들과 시간을 보냈다. 인터넷이 없으니 놀 것은 단순했다. 카드게임을 하거나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먹거나...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니 지루할 틈이 없었다.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서로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그 시간을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보냈다. 태풍 덕분에 만들어진 인터넷이 없는 세상이 너무 평화롭고 좋았다.

태풍과 함께한 일주일 / 이해진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활동했던) 12기가 9월에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우리의 9월은 낮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제외하곤 잠잠히 지나가서 태풍을 경험하진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풍은 우릴 순순히 지나치지 않았다. 한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여실히 알린 것이다.

End Poverty Campaign을 마칠 때쯤, Scholar들이 하나 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빗줄기가 굵어질 즈음이었다. '뭐 얼마나 오겠어' 싶었는데 해가 지고 나선 강풍이 몰아쳤다. 덕분에 아디 하우스에 가지도 못하고 YMCA에 꼼짝없이 발을 묶이게 됐다.

태풍은 점점더 심해져 다음날부턴 전기가 끊기고 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이빨을 닦으려 했는데 물이 안 나왔다. 정수 물도 반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차마 그 물을 쓸 수도 없었다. 촛불을 좀 사 놓을 걸, 물을 좀 사놓을 걸, 물이라도 받아 놓을 걸, 빨래 하고 싶다 등등..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으니 후회와 아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러나 태풍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음을 후회하기엔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태풍과 함께한 일주일 / 이해진

사실 처음엔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좋았다. 오랜만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휴식이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은 편한데 비해 마음이 불편했다. 덤프 사이트 아이들이 걱정되었다. 집이 튼튼하지도 않고 주변엔 다 쓰레기인데 강풍에 다치진 않을지, 대피할 곳은 있는지 궁금했다. 각자 집에 간 YMCA 친구들의 안위도 걱정 되었다. 살아는 있는지, 집에 피해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기가 끊겨서, 덕분에 와이파이도 끊겨서 연락할 길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정상화 되고, 다행히 모두가 안전하고 관참음을 확인했을 때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다.

태풍은 근 일주일간 이어졌다. 이후 태풍이 남긴 자리는 황폐화 그 자체였다. 도로는 물에 잠겼고 부러진 나무, 쓰러진 간판이 곳곳에 널부러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비가 그치자마자 답답한 마음에 장화를 신고 매일 매일 어딘가로 향했다. 시장이든, 쇼핑몰이든, 발길 닿는 곳 어디든 좋았다. 휴식이 주는 즐거움은 커녕 캄캄한 집에 더 이상 박혀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나 그리웠다. 태풍은 그렇게 나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여실히 느끼게 해주고 사라졌다.



PLY
Ultron
SPRINT 4T
REV-X

EDNAS
SCHOOL

YMCA

다섯 번째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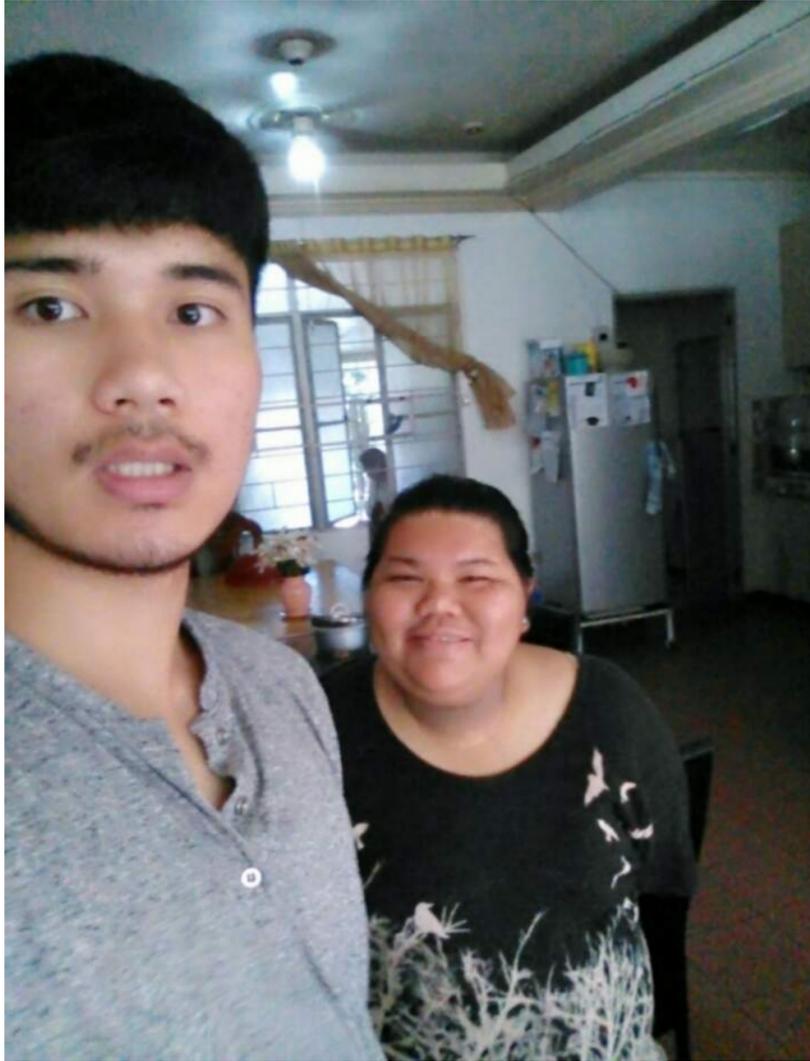
홈스테이





에밀리오의 홈스테이 이야기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Mabel (마벨) : 나의 엔젤
마벨은 우리 작은 형과 동갑
이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고 했으나 너무나 친절하게
챙겨주고 형과 비슷하게 늙
은 아저씨 같다는 느낌이 안
들고 또래같아서 많이 친해
진거 같다.
자주 만날 사이라서 더 더욱
친해져야겠다.



Anna (마벨 어머니) : 유머러스하시고 터프하시
지만 운전하실때는 아기같은 마벨의 어머니!
60이 다 되가지지만 매우 활발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셔서 유식한 부분이 많으
셨다.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Cecilia (할머니) : 한국의 할머니들과 비슷하게 집안의 어른으로서 무게감이 있으셨고 80이라는 나이 치고는 매우 정정하셨다. 많은 말을 못 나눠서 아쉬웠다.

Jackeuz bourdain (고모) : 첫 날에는 못 보고 다음날 부터 봤는데 가족의 식사的大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셨다. 보면 볼수록 나를 웃기게 해주셨고 나이가 50이라고 하시길래 장난치지말라면서 그랬는데 사실이여서 너무 놀랐다. 확실히 한국과는 다르게 나이와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친숙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Phen (숙모의 아들 1) : 숙모의 첫째아들 Phen은 보통 카일로라고 부르고 나이는 17살이다. 아디하우스 근처에 있는 Luzon대학교 학생이고 농구를 좋아하고 나와 같이 롤을 좋아했다. 롤을 통해서 친해진 친구였고 덕분에 롤을 해서 너무나 좋았다. 고마워!



Gaby (숙모의 아들3) : 모태귀염을 가지고 태어난 막내 아들 가비, 아들들이 갈수록 일본 사람같이 생겨서 놀랐고 너무나 진짜 이뻐다. 한창 웅알이 중이라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었다. 아마 크면 많은 여자들을 울릴 거 같은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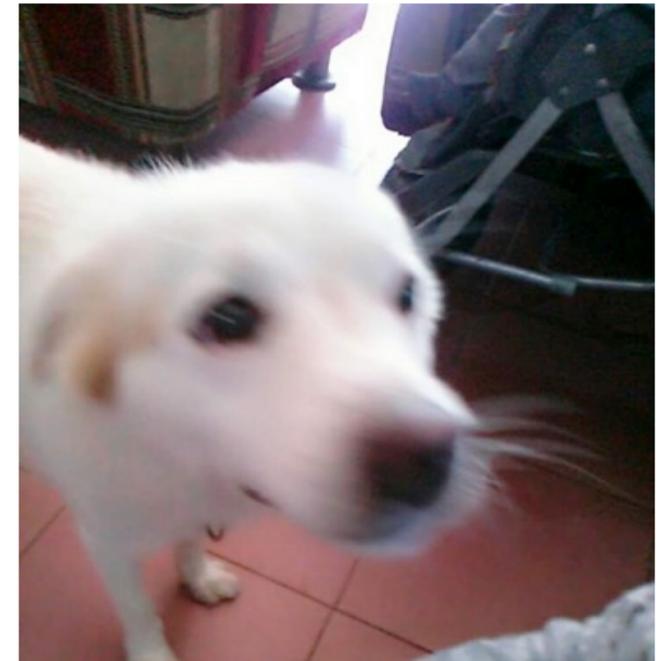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Josh (숙모의 아들2) : 둘째 조슈아!

나이는 5살 정말 안양에 있을때 7살 반 애들이랑 완전 비슷한 아이였다. 저 정도면 어느 정도 힘도 있고 고집도 세서 말도 잘하고 한 명이지만 3,4살 3명 정도는 잡고 노는 기분이였다.

아마도 자기 형이 잘 안놀아주고
신기하게 생긴 내가 와서
놀고싶었다고 생각한다.



고양이들 : 정말 많은 고양이들이 있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면 가든에 나와서 마벨과 고모가 주는 밥을 기다리고 있다. 귀엽기도 하면서 저녁마다 무섭게 만들어 주는 존재였다.

Chino (강아지) : 이제 2살이된 치노는 가족들에게는 역시나 너무 순종적이었지만 나한테 만큼은 아니였다. 처음에 너무나 무서워서 약간 뒤로 뺐지만 계속 집에 있다보니 치노도 어느 정도는 가족처럼 생각해서인지 나에게 잘해주었다. 잘 해준다는 건 짓지 않았다는 말이다. 다음에 보면 꼭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첫 날에는 어머니께서 조금 늦게 마치고 차가 막혀서 늦게 출발했다. 차가 있으셔서 몇 명 집에 가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 주시고 집으로 향하였다. 집에 도착하니 9시가 다 되었고 가족들과 간단한 인사만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둘째 날에는 마벨과 어머니와 함께 근처에 있는 바다에 갔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휴가철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다. 이유를 들어보니 일찍 가야 물도 깨끗하고 덥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CSI몰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와서 잠을 잤다. 셋째 날에는 오전 오후 쉬다가 저녁쯤에 Eternal Gardens에 갔다. 11월1일은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돌아가신 가족분들을 찾아뵙는 날이기 때문이다. 가든 근처에는 정말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기했다. 넷째 날에는 마벨이 새벽부터 일어나 중요한 미팅때문에 바기오로 가서 저녁쯤 마벨이 오기 전까지 먹고 쉬고를 반복했다. 그리고 근처에 사시는 한국 아주머니들을 만나 수다를 나눴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다. 이런걸 느끼는 걸 보니 어느 정도 한국이 그리웠던 거 같다. 헤어지기 전에 아주머니가 한국식 샌드위치를 주셔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맥주 2병과 함께 먹고 마지막 저녁을 보냈다. 마지막 날이 밝았고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은 뒤 급하게 사진을 찍었다. 아침에 너무 급하게 출발해서 아쉬웠다.

첫 날과 마지막 날 빼고 3일 정도를 보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갔고 느낌이 손님으로 초대되었다기 보다는 그냥 가족처럼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았다. 조금 더 오랫동안 있었으면 말은 잘 안통하지만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했을건데 준비를 많이 못해서 아쉬움이 큰 홈스테이였다. 하지만 가족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에서 가족, 친척들과 매번 밥먹는 느낌이 들어서 허전하지 않은게 너무 좋았다.



Cemetery



마벨 집의 가든



엘레나의 홈스테이 이야기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티나이 (79) - 롤리의 할머니

롤리 (21) - 본인이 귀엽다고 계속 주장하는 장남

로날리 (19) - '로나'로 불리는 조용하고 사려깊은 언니

로웰 (16) - 상남자. 낮가림이 있으며 친구들이랑 자주 놀러 나감

바비 (11) - '뽀뽀'으로 불리며 우에노 주리와 속 닮았음.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마리엘 (14) - 낮을 가리지만 눈인사는 꼭 해주는 상냥한 친구



마리나 (11) - 카메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모이모이 (8) - 싸우는 걸 보면 손에 돌이...



레이셸 - 요즘 핫한 동네 여신, 곧 임신부가 되실 예정



마리아 (7) - 외모에 관심이 많다



마이마이 (6) - 레이디가이 가이 (내가 붙여준 별명, 팡가시난어로 가이가이는 Destory라는 뜻이다)



미미 (4) - 뽀뽀머신, 메롱머신



슈퍼맨 - 얼굴에 검은색 가면을 쓰고 있다. 배트맨 아닌가.

베이비 - 내가 이름 붙였다! 태풍 이후에 온 뉴페이스.

All soul's day



우리는 홈스테이를 필리핀의 연휴와 맞물려 가게 되었다. 그 중 All soul's day에 나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롤리의 할아버지와 친척들이 묻혀 계시는 공동묘지로 갔다.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공동묘지를 가 보는 것이어서 그런지 눈 앞에 보여지는 모든 풍경들이 낯설었다.

All soul's day



묘지에는 많은 관들이 시멘트처리가 되어 놓여져 있었다. 관들에는 돌아가신 분의 이름, 날짜, 그리고 밑에 꼭 한마디씩 적혀 있다. 그 한 마디에는 돌아가신 분을 향한 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이 응축되어 있었다. 스쳐 지나가듯 눈으로 읽어 내렸지만, 사실 말을 이해하는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듯한 느낌들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다가왔다. 이렇게 '죽음'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곳에 가면 언제나 평소에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다. '나의 삶은 과연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같은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하고, '죽어서도 빈부격차가 뚜렷이 나뉘어지는 건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구나' 라고도 생각했다.

All soul's day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친구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더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곳에서 만난 롤리의 친척분들은 자리를 어색해하는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다. 많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준 롤리에게 고맙다.

All soul's day



All soul's day 밤에는 양초를 가지고 자기네 집 주변의 불을 밝히는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찾아오는 영혼들이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아무 불빛도 없는 길에 생긴 양초 길은 너무 로맨틱해서 처음 본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다. 그리고 바로 롤리가 귀신붙는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무드 다 깨졌지만... 색다른 명절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이들의 습격



롤리네 집에 머무는 동안, 정말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 롤리네 집에 놀러왔다. 롤리는 “어린 사촌들도 대부분의 시간들을 YMCA에서 보내는 롤리가 집으로 돌아오면 먹을 걸 많이 들고 오니까 자기네 집에 돌아가지 않고 롤리네 집에 머문다”고 했다. 롤리의 사촌동생들은 정말 정말 장난꾸러기들이다. 정말... 정말 장난꾸러기들이다. (아이들 진짜 착해요! 다만 진짜 짓궂을 뿐...) 그 에너지를 다 감당하지 못한 나는 때때로 소진되어서 파김치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의 습격



‘가족이 많다는 건 이런 것일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가족이 많아서 행복하냐고, 아이들은 ‘행복하다’는 즉답을 내렸다. 그 속도에 깜짝 놀라서 이유는 미처 물어보지 못했지만, 별 것 아닌 일에 함께 웃고 떠들던 반짝반짝한 기억들과 더불어 아이들과의 대화는 가족, 행복에 대한 내 가치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고양이들에게 함께 밥을 줄 때마다 롤리는 자신의 집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그림다며 줄곧 내게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레이셴(강아지), 슈퍼맨(검은색 고양이), 베이비(주황색 고양이)를 봤을 때 ‘아 내가 정말 롤리네 집에 왔구나’라는 실감이 들었다.

롤리네 집에서 경험은 생각치도 못했던 서프라이즈 선물의 연속이었다. 밤에 이빨을 닦으러 펌프가에 갔을 때 내 생애 처음 본 수많은 별들, 첫 날 본 유성. 롤리가 동네 구경시켜주겠다고 자전거를 태워줬는데 길가다가 아이스크림 아저씨를 보고 사준 시원한 아이스크림. 시장에 장보러 갔다가 관심을 보였더니 로나가 선뜻 사준 우정 팔찌, All soul's day 날 밤에 본 로맨틱하게 빛나던 롤리네 집 앞 야경, 고양이답지 않게 사람 손을 잘 용서해주는 슈퍼맨과 베이비까지.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경험들뿐이었다.

롤리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롤리의 가족들과 생활하다보니 롤리에게 가끔 들었던 의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 왜 이걸 롤리는 괜찮다고 하는지, 왜 롤리는 이걸 알 수 있었는지, 왜 롤리는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롤리네 집에서 홈스테이는 지금까지 나와 롤리가 만들어온 추억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엘레나 살롱



300년 된 교회

마리나의 홈스테이 이야기

Kym네 집에 간 마리나!

**Kym뿐만이 아니라 Kym의 동생 Kiehl도 알고 있더라
이들의 가족이 더더욱 궁금했다.**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총총 박히는 산호세에 위치한
킴의 스위트홈으로 초대한다☺**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빠의
남자친구분!

파파!

Kate*_*

마마!

마리나:)

김~

아빠
Kathleen^ - 이싱☺
^

카일~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Papa 엄격하시면서도 자상하며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이실 정도로 재미있으신 아버지. 미니언 광팬이시다(하하).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Jimmy 총장님과 함께 Pangasinan YMCA에서 Staff로 오랫동안 일하셨다. 그 덕분에 papa와 YMCA에 대해,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허를 찌르시는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다. Papa는 YMCA로부터, YMCA에서 일하면서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말씀하셨는데, YMCA에 대한 많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 자신의 아들들(김과 카일)도 자신처럼 YMCA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길 기대하신다.

Mama 집안 일을 책임지시는 따뜻한 어머니. 김의 집은 아띠 하우스와는 다르게(?)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었다. 어머니의 손길이란 바로 그런 것이리라. 평소에 생활하면서 김한테 집안일을 배우곤 했는데, 김은 어머니가 정말 깔끔하신 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가본 김의 집에서 Mama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Mama는 보통 6시 정도에 일어나셔서 Papa와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기신다. 휴일이라 아이들이 편하게 자고 일어나게끔 놔두셨는데, 그 때문에 Mama와 생활패턴이 완전 반대가 되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Kathleen 김과 카일과는 다르게 정말 하얗신 언니.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계신다. 남자친구분이 계신데, 돈을 모으면 결혼할 계획이라고 하셨다(여느 필리핀 남자들처럼 남자친구분도 굉장히 로맨틱 하시다). 아뎬는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이것저것 신경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다. 동생들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진 못했지만, 밥 먹고 함께 필리핀 예능을 보며 같이 웃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Kate

4일내내 동침한 귀여운 여동생. 이제 곧 Junior High school을 졸업하고 Senior High school에 진학한다고 한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똘똘한 친구다. 집안일도 척척 잘하고 디저트도 잘 만드는데, 밝고 애교도 많다. 아이스크림을 비롯해서 '단 것'을 정말 좋아한다. 나도 단 것을 좋아해서 케이트랑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Kym 이 집의 장남. 이지만 보통 YMCA에서 지내는 관계로 집에 오면 먹고 자는 일밖에 안한다고 한다. Kate에 따르면, 굉장히 'lazy'한 꾸야(오빠, 형)라고. 다른 형제들은 툭툭거리면서도 그런 오빠, 형을 이해하고 대신해서 자신들이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있다.

Kiehl 장난꾸러기 셋째. YMCA에서도 그랬듯이 집에서도 나만 보면 장난을 걸었다. 그런 장난이 밉지가 않고 받아주고 하다보니 집안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동생들도 잘 돌보는 카일이라 쉬는 내내 동생, 사촌들과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을 이용해서 하는 위험천만한 장난도 서슴없이 하나는 것을 보면 순진한 시골청년같다. 오토바이도 무면허인데 반해 곧잘 탄다.

Khris(Eshing) 이 집의 귀요미 막내. 원래 이름은 Khris인데 아버지가 일본분과 일할 때 그 분이 이싱이라 불러서 지금까지 이싱으로 통하고 있다. 처음엔 수줍수줍해 했는데, 나중에 같이 비치에 가서 수영도해서 정이 많이 생겼다. "Ate Marina, Don't wash the dishes. It's my job"이라고 하는데 애기인데도 듣직했는지..!



Mama & Papa's Birthday!!



홈스테이 시작하는 날이 마침 Mama의 생신날이었다. 케익이 무려 3개! 내가 사랑하는 Pigar pigar와 판
싯, 마마가 직접 만드신 케익까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봉가(Bongga_fantastic)!!☺
11월 9일은 파파의 생신이셔서 초대를 받아 홈스테이가 끝난후 다시 한 번 찾아뵈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음에 감사! 자주 올게요~ Mahal ko po kayo(사랑합니다), papa and mama!

한가로운 오후



화창한 오후, 집 주변에서 케이트, 이싱, 친척 아이들과 간단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모네 집 Pedicab도 타봤는데, 생각보다 중심이 잘 안잡혀 논두렁에 처박힐뻔 했다.

'San Fabian beach'로 고고!



뽕하던 날씨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4시쯤, 우리는 San Fabian beach로 향했다. 뉘엿뉘엿 지는 해와 푸른 바다, 촉촉한 모래까지. 김의 오토바이를 승승 타고 도착한 그곳의 절경은 지금까지진 가본 해수욕장과는 또다른 느낌이었다.

머뭇머뭇 거리다 바다에 풍덩 들어갔는데, 으아 시원해!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듯 했다. 이싱과 김과 파도도 타며 놀고, 휴장난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원래부터 신세지는 것을 싫어해서 '남의 집'에서 자는 것 굉장히 불편해 하곤 했다. 보통 일이 있어서 외박을 하게 되면 친구집보다도 찜질방을 택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기 전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 '○○ 경우엔 어떻게 하지?' 부터 '무엇을 준비해 가야지?', '감사 인사를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까지.. 홈스테이에 가기 전 설렘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김의 집은 '남의 집'이 아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족, 이 집에 스며들었던 것 같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이 너무나 따뜻했고, 함께 하는 가족들이 그저 좋았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다다익선? 다다익선!

김네 집에서 머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많은 아이들이 주는 다복함'이었다. 이전까진 나중에 결혼 하면 아이는 한 명, 혹은 둘만 낳아야지 생각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고, 한 아이에게 시간과 노력을 쏟는 편이 낫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김네 가족과 지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 아이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고, 가족이 주는 사랑은 돈에 비할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예를 들면, 넷째 케이트가 발표준비를 하는데 Computer science를 전공한 첫째 언니가 PPT를 도와주고 말을 잘하는 셋째 카일이 발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런 식으로 케이트를 도와줄 만한 형제가 많아서 그런지, 케이트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동생들을 돌보는 몫은 부모님이 아니라 형제들이었다.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하고 집안일도 서로 서로 돕는다.

가장 놀랐던 것이 "꾸야(오빠) 김이랑 꾸야 카일 중에 누가 더 좋아?"라는 질문에 대한 케이트의 대답이었다. 나 같았으면 장난식으로라도 "둘다 싫어"라고 말했을 것 같다. 하지만 케이트는 "둘다 좋아서 선택할 수 없어"라고 대답했다. "왜?"라는 질문에 요목조목 이런 이런 점이 좋아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이뻐보였다. 한편으로, 내가 친오빠와(나는 1남1녀 중 막내다) 얼마나 서먹서먹하게 지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한 명의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서 교육시키고 부모가 일일이 가르치는 것이 굳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아이가 넉넉히 누리며 살진 못하더라도, 많은 형제들과 부대끼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한다면 '특출난 사람'은 될 수 없어도 적어도 '사람다운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기준에 따라선 사람다운 사람이 특출난 사람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바람직하게 키운 데에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부모님께서 감당하시는 고통, 힘듦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파파와 마마를 존경한다. 김한테도 장난식으로 "난 너보다 파파가 더 좋아"라고 말하곤 한다.

김네 집엔 사랑이 있었다. 외국인인 내가 이 집에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랑이란 물이 흘러 넘쳐 나에게까지 흘러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홈스테이를 끝내면서 일기장에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듯 하다. 어떤 사람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기분으로 어떤 분위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이 모든 것이 '추억'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이해진이란 사람을 이룬다"라고 적었다. 김네 가족이 나에게 준 추억이란 선물이 너무나 값지고 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

여섯 번째 장



그 밖의 이야기



평가시난 YMCA의 이사이자 루존대학교의 교수님이신 Sir Nash의 초대로 헌혈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루존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 아띠들은 학생들에게 소개되어진 후, 단상 위에 앉아 행사 개최사를 들었다.

개회사가 끝나고 우리 아띠들은 헌혈을 하기위해 기본적인 설문지를 작성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진이는 몸 상태로 인해, 헤지는 헤모글로빈 부족으로 헌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헌혈이 끝난 후, 오피스에 들어가 Sir Nash께서 미리 준비해주신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ir Nash와 관계자분들 및 학생들에게 인사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여섯 번째 장 팡가시안 YMCA 수영 레슨



팡가시안 YMCA에서는 한달에 두 번 정도 어린이들을 위한 수영 레슨을 진행한다. 아띠들은 이를 돕기 위해 함께 수업에 참여했다.

어린이들이 물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 아띠들은 한 마음이 되어 YMCA Volunteer들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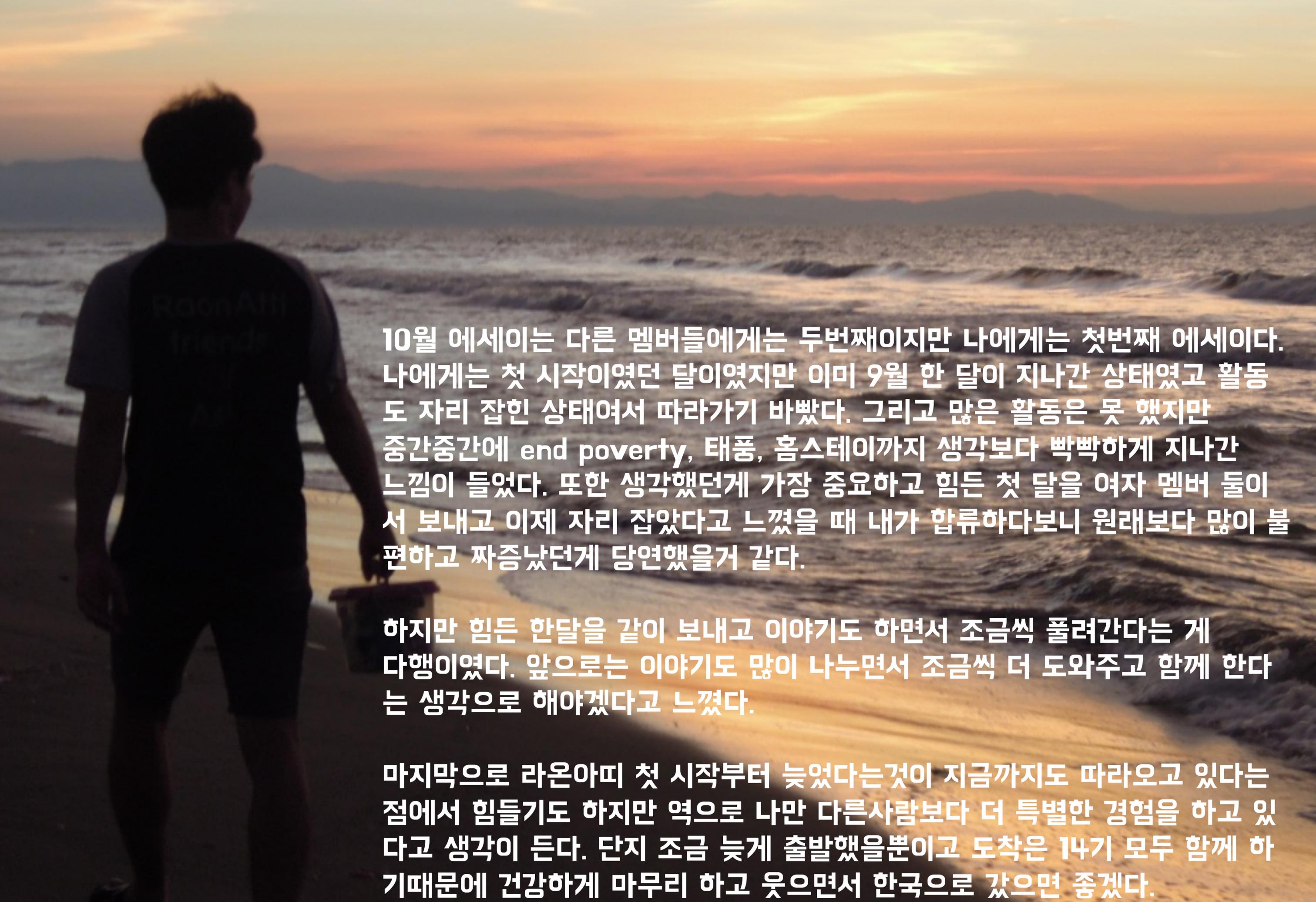
일곱 번째 장



우리의 이야기

에밀리오의 이야기





10월 에세이는 다른 멤버들에게는 두번째이지만 나에게서는 첫번째 에세이다. 나에게서는 첫 시작이었던 달이었지만 이미 9월 한 달이 지나간 상태였고 활동도 자리 잡힌 상태여서 따라가기 바빴다. 그리고 많은 활동은 못 했지만 중간중간에 end poverty, 태풍, 홈스테이까지 생각보다 뽀뽀하게 지나간 느낌이 들었다. 또한 생각했던게 가장 중요하고 힘든 첫 달을 여자 멤버 둘이서 보내고 이제 자리 잡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합류하다보니 원래보다 많이 불편하고 짜증났던게 당연했을거 같다.

하지만 힘든 한달을 같이 보내고 이야기도 하면서 조금씩 풀려간다는 게 다행이었다. 앞으로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조금씩 더 도와주고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겠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라온아띠 첫 시작부터 늦었다는것이 지금까지도 따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역으로 나만 다른사람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단지 조금 늦게 출발했을뿐이고 도착은 14기 모두 함께 하기때문에 건강하게 마무리 하고 웃으면서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엘레나의 이야기



A group of five young people are posing for a photo in a field filled with trash. In the foreground, a young woman with long dark hair, wearing a black t-shirt with a colorful graphic, smiles at the camera. Behind her, a young man in a white t-shirt with 'DO NOT FEAR' printed on it is making a peace sign. To his right, another young man is also making a peace sign. In the background, a young man in a dark t-shirt is making a peace sign with his right hand raised. A young woman is partially visible behind the man in the 'DO NOT FEAR' shirt. The ground is covered in various pieces of trash, including plastic bags and food waste. In the background, there are palm trees and a clear sky. The lighting suggests it's late afternoon or early morning.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요즘,
'내가 익숙하게 지내왔던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절실히 체감한다. 처음에는 필리핀이니까
보게 되는 간판은 다 알파벳일 것이고 매일 영어를 쓰고
엄청 덥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이겠거니라고 넘겼다.
2개월 전 처음 만난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살고 있는 것도
나는 라온아피로 왔으니깐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상을 살아내다보니 자신감을 잃고 헤메면서
지치는 순간들이 다가왔다.

하루는 푸가로에서 돌아오면서 보트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고 맑고 청량한 풍경에 감탄했다.
그리고 내가 10월에 한번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다. 찌는 햇빛때문에 아름다운 하늘을 쳐다 볼
여유조차 없이 목적지를 향해 무작정 걸었던 것이다.
나의 10월의 라온아피가 떠올랐다.

아름다운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아름다워질 순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



‘여행은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사고로 생각하고 타인의 가슴을 내 가슴에 이식시키거나 타인의 발걸음을 내 발로 옮겨 보는 일’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했다.

지금 나의 삶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나는 라온아띠로써 타인의 눈과 가슴과 발걸음을 얻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타인의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지 않고, 그 타인의 사고로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고, 내 가슴에 이식시킨 타인의 가슴이 내 안에서 결국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 타인의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어려운 과정임을 잘 알기에 잘 견뎌 그 모두를 내 것으로 다듬어 가고 싶다.

마리나의 이야기





10월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9월 첫 한 달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발길 닿는 곳이 모두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모든 음식이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이었다.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신기함과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갔고, 이젠 모든 것이 일상이 되었다.

혼자 뚜벅뚜벅 시장에 가고, 물건 시세를 알게 되어 "Mahal(비싸다)!"을 외칠 수 있고, 반대로 싸고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고, 자주 쓰는 따갈로그어가 나도 모르게 튀어 나오고, 익숙하지 않아 짙짙 먹었던 부코 주스(코코넛 주스)는 즐겨먹는 음료수가 되었고,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손빨래 속도가 빨라졌다. 하늘을 보고 어느

이해진답게, 이해진스럽게, 이해진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건 이런 것 같다. 새 옷이 시간이 흘러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닳아지고, 나중엔 헌옷이 되는 것. 지금 이곳 필리핀은 시간이 흘러 내 몸에 꼭 맞는 옷과 같다. 남들 보기에 좋은 옷이 아닌, 예쁘긴 한데 불편한 옷이 아닌, 내가 입기에 편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옷. 그렇기 때문에 이해진답게, 이해진스럽게, 이해진으로 지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옷이 점점 헌옷이 되는 것이다. 너무 편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다른 새옷을 찾는 내가 될까봐, 한국에 있는 옷을 그리워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버렸는지도 모르겠다. 10월을 보내면서 9월과는 다르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옛 속담이 무색하게 감기에 걸렸고, 소화기관도 아무 이유없이 고장이 났다. 그 덕분에 마음의 여유도 같이 없어졌다.

얼어붙어도 잊지 말아야 할, 나의 아피

이상 새로울 것이 없고, 날씨는 여전히 덥다. 컨디션 그래프의 꼭대기를 찍었고 이제 하강할 날만 남았



다음달에 또 만나요!